

벨기에 사진작가 부부 위그 & 카롤린 뒤푸아

“전통과 현대가 대조적이면서도 조화로워”

벨기에 사진작가 위그 뒤푸아·카롤린 뒤푸아(Hughes & Caroline Dubois) 부부는 원시미술 사진 분야의 대가다. 지난 35년간 중앙아프리카 왕립 박물관·루브르 박물관·사카고 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박물관, 갤러리와 협업해 3만8000여 점의 세계적 예술품을 5만 점에 넘는 사진으로 담아 157권의 사진집을 펴냈다. 이들의 사진은 그 자체로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네스코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의 구석구석을 촬영해 ‘보름달 아래의 보로부두르’라는 순회 전시를 열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보름달이 뜬 밤에만 촬영했다”며 직접 보여준 포트폴리오와 영상 자료들은 빛과 어둠의 오묘한 조화를 끌어내며 마치 보로부두르의 신비가 곁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만 촬영하다 보니 3년이나 걸렸죠. 보로부두르 외벽 부조에 빛을 부여하는 작업이었는데, 어두운 암실에서 사진이 탄생하듯 부조에 새겨진 붓다의 삶을 빛으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보름달을 고집한 건 보름달이 불교에서도 많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사원이 주는 감정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보름달 밤의 불빛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관람객에게 우리가 사원에서 밤에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카롤린)

이들은 아프리카 조각 등 원시미술에 천착한 자신들의 작업을 “조상들의 작품 초상화를 찍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곧 자신들의 주제라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건 모든 문명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유럽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바깥의 제례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래서 아메리카대륙 발견 이전의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원시미술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원시미술 자체가 내 주제고, 거기에 나름대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해 다시 살게 하는 작업입니다.”(위그)

중국·일본미술 컬렉터와 작업한 적은 있지만 한국은 ‘미지의 나라’였다고. 이들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있는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느낀 게 많다”며 “특히 ‘고요함’이 인상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에 대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저도 예술에서 ‘고요함’을 중시하거든요. 음악에도 고요함이 없다면 가치가 없듯, 사진에도 여백과 고요가 있어야 시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가쿠박물관 한옥에서 불교 사원과도 같은 고요를 느꼈는데, 특히 여성의 공간에서 시적인 느낌을 받았어요.”(위그) “리움에서 본 고려청자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했죠. 백자도 아름답지만 청자만의 고유한 빛깔에서 고고한 수준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풍기는 것 같더군요.”(카롤린)

이번 문화소통포럼(CCF) 2017은 ‘렌즈를 통해 본 한국’이란 부제 하에 총 18개국 내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대상 수상작인 강병인 캘리그래퍼와 임재욱 사진작가의 동영상 ‘아름다운 한국 그리고 한글’에서도 ‘고요’를 찾아냈다. “영상의 이미지가 주는 시적 울림과 캘리그래피의 어우러짐이 절묘했어. 한글의 우아함도 인상적이었는데, 한글에는 다른 문자에는 없는 공간감이 있더군요. 마치 캘리그래피 자체에서 음악이 들리는 듯 했는데, 그만큼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문자인 것 같아요.”(위그)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발굴’을 테마로 한 행사인 만큼 이들도 짧은 일정 속에 나름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발견하려 애썼다. 결론은 경복궁 야경을 감상하며 느낀 “현대와 전통의 대조속 조화”였다.

“궁전이라는 전통의 공간이 매우 현대적인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들은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그 불빛 때문에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불빛 속에 여러 가지 대조가 모두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한복만 봐도 그래요. 벨기에나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전통의상을 입지 않고, 축제 때 간혹 입을 걸 봐도 현대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런데 한복에는 현대적인 이미지가 있더군요. 장 폴 고티에가 디자인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카롤린)

이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인 원시 미술과 제사의 의미를 가진 꼭두, 그리고 한국의 자연풍경을 좀 더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주제가 원시 미술이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싶네요. 전통과 현대의 대조와 공존이라는 역설은 자연과 기술로도 이어지고, 그게 바로 한국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연과 기술은 곡선으로 이어지더군요. 공항에서부터 곡선이 많아 놀랐는데, 돌아다니며 보니 서울 풍경의 곡선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연의 울림이 현대 문명의 곡선에 반영되고 있단가요. 곡선은 직선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선이죠. 한국과 한국인에게서도 그런 곡선의 느낌을 받았고, 그게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위그) ●

글 유주현 객원기자 yijoo@joongang.co.kr



위그 & 카롤린 뒤부아 부부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을 비롯해 세계의 원시 미술을 빛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06 THIS WEEK HOT

별세한 포크 음악의 대부 조동진

08 ISSUE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를 애니로 만든
안재훈 감독

13 FOCUS

2017문화소통포럼에 참석한
유럽의 사진작가들

18 COLUMN

김상훈의 컬처와 비즈니스

20 GALLERY

권진규의 에센스

22 TREND

제10회 부산국제광고제로 보는
광고계 최신 트렌드

26 WATCH

RADO & DESIGN <2> 빈티지

28 TASTE

강태환의 그 동네 이 맛집

29 CULTURE TALK

등록문화재 제349호
부산 초량동 일식가옥의 운명

30 REVIEW & PREVIEW

뮤지컬 '벤허'

32 BOOK

『소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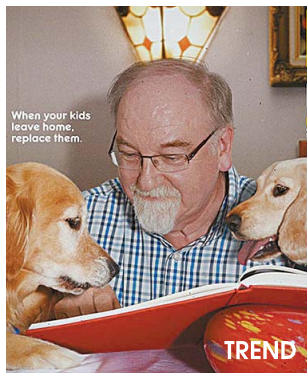
33 GUIDE & CHART

34 ESSAY

서현의 상상력 사전

35 PHOTO ESSAY

포토그래퍼 Baki의 Body Inspiration



editor's letter

드라마 엮보기

드라마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설정에 욕을 하면서도 보게 한다는 '막장 스토리'라고 폄하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과 그림자가 어느 정도 투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며칠 전 SBS의 '조작'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섬뜩한 장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중견 기자들과 혈기 방자한 여검사가 거약(巨藥)의 음모에 거의 맨손으로 맞서는 내용인데, '기레기' 인터넷 언론이 어떻게 가짜 뉴스를 띄워 여론을 뒤집고 자신은 뒤로 쏙 빠져버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군요. 실제 저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가짜 뉴스가 떠돌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가 무척 어렵겠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얼마 전 총영한 JTBC의 '품위있는 그녀'에서도 충격적인 설정이 있었죠. 강남 상류층 집안 가사 도우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다를 도청해 최고급 정보로 팔아먹는다는 '풍속정'이란 반찬집입니다. 모 제지회사의 사례에서 영감을 받아 뼈대를 만들었다는 드라마인 만큼, 이 사례도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딱딱딱한 최고급 정보를 노리는 수요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일갈이 웬지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드라마에서 또 다른 세상을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살얼음판 위에서는 그저 조심해야 합니다.

정형모 문화에디터 hyung@joongang.co.kr

중앙SUNDAY

표지 황순원의 단편 소설 『소나기』를 안재훈 감독이 서정미 넘치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사진 연필로 영상하기

문화에디터 정형모 취재 이영희 한은화 유주현 사진 전호성 디자인 전유진 광고 구명서 김진경 이상협 마케팅 백두규 박유선 이아람

기사제보 02-751-9000, 080-023-5002 광고문의 02-751-5555 / Fax 02-751-5806

1부 1000원 / 월 5000원 정기구독문의·고객센터 080-023-5005

S



S MAGAZINE no. 547 SEP 3~4 2017

그 가을, 첫사랑



9 771976 026400

ISSN 1976-0264

58
SUNDAY